

# 2026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3	3.20	회의실	10/12	4	1	15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동진·박양우·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10명)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6	4	0	0	10	0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0	0	10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행정통합의 장단점 등 시민의 궁금증 해소 바람	<뉴스투데이> 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시민 불편 없어야”(3.26), 홈페이지 내 ‘통합하면 뭐가 달라져요?’, ‘광주전남 행정통합’ 코너 운영 등 방송 조치	'26.3
"	<시사용광로> 후보의 공약 비교, 실현 가능성,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균형 있게 다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 주길 바람	<시사용광로> 두 달 앞 6.3지방선거 판세는?(4.2), <뉴스데스크> 주청사는 광주, 의대는 균등··지역별 시각차 뚜렷(4.9), 민형배,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전남광주 만들겠다”(4.9), 기본소득vs균형복지··교통까지 엇갈렸다(4.13), <시사특 라이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밝히는 광주전남의 미래(4.8) 등 방송 조치	"
"	행정통합에 따른 20조 원의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감시 역할 기대	<시사용광로> 통합특별시 20조 활용법(3.19) 등 방송 조치	"
"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눈과 귀가 되어 공정하고 깊이 있는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공약 검증 기대했지만··“네거티브 여전”(3.29), 민주당 예비후보들 ‘TV’토론회’ 줄불참 논란(4.1), 전남모 선거구 불법전화방 의혹(4.5) 등 방송 조치	"
"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역할 바람	<뉴스데스크> 재정 지원 없으면 ‘무늬만 통합?’(4.3), ‘8조 교육 재정’ 전 통합교육감··‘혁신vs안정’ 격돌(4.5), <뉴스투데이> 전남광주 ‘통합교육’ 밑그림은 누가?(3.27) 등 방송 조치	"
"	교육감 후보자 토론,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도 담아내 주길 바람	편성과 보도 책임자 전달 및 토론회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3.30)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채팅 내용 소개가 많아 지루한 감이 있음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3.30)	"
"	전통을 소재로 한 내용 많이 알려주길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왕과 사는 남자 문경 엄흥도 마을(3.24), 60년 세월을 품은 이발소(3.26), 회연서원 백매원(4.8) 등 방송 조치	"
"	<시사특 라이브> 출연자 목소리 작고 빨라 내용 이해 어려움이 있음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3.30)	"
"	<시사특 라이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명칭, 정확한 공식 명칭 사용 바람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3.30)	"
합계		10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행정통합의 장단점 등 시민의 궁금증 해소 바람(반수경 위원)	행정통합 관련한 기획보도와 선례 취재를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하겠음	○		
"	<시사용광로> 후보의 공약 비교, 실현 가능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균형 있게 다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 주길 바람(설제학 위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양자 토론 유치 등을 통해 균형감 있게 알권리를 제공하겠음	○		
"	행정통합에 따른 20조 원의 예산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감시 역할 기대(유한별, 정회 위원)	행정통합 20조 원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		
"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눈과 귀가 되어 공정하고 깊이 있는 보도 바람(이경주 위원)	초대 통합특별시장과 단체장,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도하겠음	○		
"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역할 바람(이미진 부위원장)	정책과 공약 검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선거 보도에 임하겠음	○		
"	교육감 후보자 토론,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도 담아내 주길 바람(정인영 위원)	통합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제대로 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채팅 내용 소개가 많아 지루한 감이 있음(박양주 위원장)	시청자의 반응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의 지루함이 없도록 구성 전반을 살펴보겠음	○		
"	전통을 소재로 한 내용 많이 알려 주길 바람(양지현 위원)	지역의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매거진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프로그램에 잘 담아내도록 적극적으로 소재 발굴을 하겠음	○		
"	<시사특 라이브> 출연자 목소리 작고 빨라 내용 이해 어려움이 있음(김동진 위원)	출연자에게 해당 사항을 유의하도록 전달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음	○		
" (시청자 불만)	<시사특 라이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명칭, 정확한 공식 명칭 사용 바람	정확한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시청자에게도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3월)

일시	2026년 3월 20일(금) 16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동진 · 박양우 · 반수경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정인영 · 정희 위원(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 (4명)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치 세계화 위원회 프로젝트 출범식 관계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3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사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다.
- 김낙곤 사장 :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 출범을 하게 됐다. 김치와 김장 문화, K-푸드를 세계화 하는 출발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17, 18일에는 특별시장 토론회 생방송을 민주당 주관으로 했다. 오늘 6시에 최종 다섯 명이 확정될 듯하다. 특별시장 선출이 지역 관심사인 만큼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 보고사항부터 해달라.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2월24일 ‘빛나는 초대석’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출연했다. 3월5일 광산교싸움놀이축제, 3월11일 옛 도청 복원 관련 방송을 했다. RAPA 제작지원 공모에서 1차 통과 <빛나는 나의 도시>, <나비처럼 날아올라>가 1차 통과를 했다. <정오의 희망곡>, <놀라운 3시>, <라디오칼럼> 등 라디오 정규방송을 계속했으며, 디지털콘텐츠로서 <전설의 타이거즈>에서는 3월11일 오전 9시 30분 장채근, 한희민 편을 녹화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4월17일 화순 공정식가 요제 녹화, 4월28일~30일 <테마기행 길> 구레편 촬영이 예정돼 있다. 디지털콘텐츠에는 3월25일 <지속가능한 전남광주를 위하여>가 광주교대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역방송 아카이빙 지원사업을 준비하겠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형배, 강기정, 김영록, 주철현, 신정훈, 정준호 등 여섯 명의 예비후보가 출연했는데 첫 공식 TV 토론에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평균 2.7%, 최고 4.4%였다. <시사용광로>에서는 2월19일 윤석열 첫 판결 그리고 5·18 개헌, 2월26일 행정통합 속 교육정책 방향은, 3월12일 6.3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시작, 3월19일 통합특별시 20조 원 사용법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계획은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공모를 하고 있다. 네이버 입점을 위한 사내 TF 13차 회의를 진행했고, 매체 소개서, 3개월 치 기사 준비 등 2개 분과로 나눠 진행했다. 3월25일(수) 최종 응모 서류를 낼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광주MBC, 무등일보, 뉴시스 3사 공동으로 시행한다. 지난 25년 6월 처음 실시한 이후 26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여론조사를 4월에 할 예정이다. 이상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보고 사항에 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 반수경 위원 : -통합이 된다는 것에 대한 시민 관심이 폭발적이다. 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어떤 게 시민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엠비시에서 조금씩 다뤘는데 아쉬운 건 공급증이 많으니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등 시리즈로 구체화해서 시민의 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 박양우 위원장 :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으로 인한 혜택이나 긍정적, 부정적 면을 알려주면 좋을 듯하다.
  - 매주 화, 수, 목요일에 방송되는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는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어서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3월10일 방송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짜여 있어서 흥미롭게 시청했다. ‘참미르초등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전체 프로그램 모두 알찬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백금열의 뉴스모타모타’는 전하는 내용도 좋았지만, 공동 진행자인 백금열 님의 진솔하고 소박한 말투 그리고 덧붙이는 해설이랄까 의견 모두 듣기에 쉬우면서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리스크로 오일쇼크 공포가 여수산단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은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쉽게 체감되는 내용으로 유익했다. ‘국민의힘’ 사정을 전한 정치 소식도 말씀 내용이 시원시원해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다만 지역정서에는 꽤 부합했겠지만,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시청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시청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동 프로그램에서 일방적으로 한 공당을 비판한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지는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 고이금주 회장에 관한 소식도 정말 좋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알려지면 좋을 내용들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방송의 주요한 특권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전시관 관람은 물론 이분에 관한 책인 『이금주 평전』을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또 광양 매곡동 탐매마을

의 흥매화 소식은 정말 보기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행복하게 해주었다. 겨우내 움츠렸던 지라 봄이 오는 소식을 접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분이 기분 좋게 보았을 것이다. 실시간 오픈 채팅을 통해 쌍방 소통한 부분도 생동감 있어서 좋았다. 다만, 채팅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다 보니 좀 지루한 감이 있었던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동행 프로그램인 ‘오늘도 갑니다’는 언제 보아도 좋은 것 같다. 이번에 소개한 ‘충남 보령 병원선’의 내용도 좋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운영하고 있진 아니건 간에, 전라남도의 병원선 운영 정책에 생산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동진 위원 : -3월17일 <시사톡 라이브>에서는 ‘3.1운동 주역 김범수 선생 공로 뒤늦게 인정’을 주제로 박해현 초당대학교 평생교육대학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 교수와 이슈 인터뷰를 이어갔다. 마한사 전문가가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부터 특히, 광주 출신 김범수 선생에 대해 재평가 작업을 주도하고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미와 선생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의 과정을 듣는 시간이었다.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는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김범수 선생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왔다. 다만, 출연자의 목소리가 작고 빠른 편이라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라디오 매체 특성상 자막 등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출연자 목소리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 반수경 위원 : -2026년 3월 11일 방영된 <시사용광로>에 관한 의견이다. 먼저 방송 세트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배경이 너무 경직된 느낌을 받았다. 여건이 된다면 당일 주제에 맞는 사진 등 배경을 신경 쓰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해당일의 주제가 전남·광주 통합과 관련한 내용인데 요즘의 광주·전남의 통합문제가 핫 이슈인지라 많은 시청자의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어 주제 선택이 좋았다. 다만, 세대정치연구소 이동수, 조선대 정치외교과 지병근 교수가 2분만 나와서 논제를 이야기하는 건 다소 주제 대비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향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없어 답이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두 분의 상반된 다양한 의견이기보다는 상대 게스트의 의견에 동의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많았다. 진행자 또한 좌우에 자리한 두 분을 번갈아 보느라 시선이 불안정해 보였다. 진행자나 게스트가 선거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후보들을 그들이라고 자주 지칭하던데 후보들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듣기에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 설제학 위원 : -3월 12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6.3 지방선거를 주제로 했다. 6.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관심 있게 시청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뉴이재명 현상’, ‘이대남’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의견은 현시점에서 대다수 국민이 동감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대해 전문가 패널리스트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물론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다 보니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내용의 대부분이 전남광주특별시장에 관한 내용으로 너무 많이 할애된 것 같다. 지방선거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대한 시청자들은 다소 아쉬움을 느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각 후보의 공약 비교, 실현 가능성,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다뤄 주신다면 유권자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양지현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 3월12일 방송에서는 요즘 핫하다는 봄동 비빔밥 소개와 그게 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정보를 주어 좋았다. 단순히 맛집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첨단지구, 수완지구 등 광주 주요 지역의 제철 식재료 봄동과 최신 트렌드 혼밥을 결합하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점이 좋았다. 논산에 있는 대장간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대장간이 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다. 영상 도입부에서 별도의 내레이션 없이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는 시청자에게 단순한 소음을 넘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특히 4대가 이어온 가업의 숭고함은 감동적이었다. 사라져 가는 전통을 소재로 한 소중한 콘텐츠를 많이 알려주길 바란다.  
-3월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생중계했다. 이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생중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후보자 4인의 자기소개 발표 시간이었다. 자칫 정책 대결과 날 선 공방으로만 흐를 수 있는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성은 매우 신선했다. 덕분에 정치인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면모와 진솔한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었고, 이는 시청자들이 후보자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 유한별 위원 : -<시사용광로> ‘통합특별시 20조 활용법’을 시청했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이 통과되어 2026년 7월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결과를 이루어 냈고 이제는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자생력 등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조 원의 재정 지원은 AI, 반도체, 에너지 등 최첨단 산업육성,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투입하여 성장 엔진을 새로 장착하고,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우리 지역의 고질적 문

제점을 보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출발점 인만큼 20조 원이 단순히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여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MBC가 재정 지원이 애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말뿐인 행정조치로 영업은 여전하다는 영산강 불법 파크골프장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봤다. 최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크골프가 유행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파크골프장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광주MBC가 고발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해당 지자체는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사업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당 지자체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국민의 여가 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관련 법령에 맞는 시설이 설치, 유지되어야 한다. 이 기본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광주MBC가 부실한 행정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보도 등을 통해 그러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밝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자정작용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MBC의 이러한 후속 보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하겠다.

○ 이경주 위원 : -광주MBC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가 마련한 '6.3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시작'은 선거를 80여 일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에게 매우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 행정 수장 선출을 넘어,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통합 단체장의 탄생과 현 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짚어준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 민주주의와 현실 정치의 균형을 잘 포착했다. 방송에서 다뤄진 '시민 공천 배심원제' 논란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대의제 정치의 대표성 및 공정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다. 또한, 전남 동부권의 캐스팅보트 역할과 소지역주의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예리한 분석이었다. 둘째, 갈등 나열을 넘어선 '통합의 시너지'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통합되는 역사적 시점만큼, 현상의 나열보다는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끌어내는 연출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시사용광로>가 더욱 가치 있는 지역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대별 가치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연결이 필요하다. 2030 청년 세대의 투표 성향 변화를 분석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실용적 가치가 인공지능이나 콘텐츠 산업 등 지역 산업 생태계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다루면 좋겠다. 이는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광주MBC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방송은 광주MBC가 지역의 의제 설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은 선거 기간에도 유권자의 눈과 귀가 되어 공정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지속해 주시길 기대한다.

○ 이미진 위원 : -2026년 6·3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며 광주·전남 지역의 공천 경쟁과 선거 구도가지 조기 달아오르고 있다. 행정통합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한 자격 심사를 예고하는 등 룰의 전쟁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 광주·전남 핵심 이슈는 행정통합 변수, 민주당 공천 경쟁, 컷오프 없는 경선, 구청장 및 시장 선거 등인 것 같다. 4월이 가까워지는 만큼 본격적인 승부수가 예상되며, 각 정당은 공천 룰 조정과 출마 선언으로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유례없이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지만, 선거의 기본인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지역민의 생활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선거가 되기를 기원한다. 선거에 있어 최전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광주MBC의 역할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3월5일 <시사용광로>는 광주와 전남의 교육 수장들이 직접 출연해 행정통합 이후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어려운 정책 이야기를 교육감들이 직접 풀어서 들려주니 지역 교육의 미래에 대해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잘 짚어준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다만,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날까 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원칙적인 답변만 강조되어 현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주기엔 부족했다. 앞으로 정치가 변하더라도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대안을 파고들었어야 한다. 또한, 행정 용어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교육 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이다. 이번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목소리도 폭넓게 담아내는 후속 방송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 3월12일 방송에서는 지역의 봄꽃 축제 소식과 함께 요즘 유행하는 '혼밥' 맛집을 소개해 주어 매우 즐겁게 시청했다. 특히 혼자서는 먹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샤브샤브나 코스 요리를 1인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곳들을 보여준 점은 혼자 사는 시청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였다. 변화하는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점이 돋보였다. 다만, 축제 소개에서는 예쁜 풍경 위주로만 보여준 점이 조금 아쉽다. 축제장에 갈 때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주차는 어디에 하면 편한지 같은 실제 방문

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챙겨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혼밥 맛집 소개에서도 단순히 음식 맛만 전하기 보다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식당의 분위기나 서비스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 더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길 바란다. 다음에는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처럼 세대별로 봄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도 함께 소개해 주면 더욱 알찬 방송이 될 것 같다.

- 정희 위원 : -3월17일 <뉴스데스크>에서는 토론회를 다뤘다. 1호 공약이 후보별로 달랐지만, 누가 특별시장이 되든 4가지 즉, 분권형 행정체계, 반도체 공급망 구축, 특별시민 수당, 직접 민주주의 강화가 모두 이루어지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되길 희망해 본다. 그리고 20조 재원을 기업 유치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20조 원을 4년 안에 모두 쓸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계획 수립에 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수립된 계획에 따라 향후 운영비용이 필요할 경우 20조 원 재원의 일부를 남겨두어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광주MBC가 계획과 향후 운영계획 모두에 관해 관심을 두고 취재 및 보도해 주셨으면 한다.

-3월11일 <빛나는 나의 도시>를 시청했다. 전남도청의 복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 속으로 타임슬립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가급적 그때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에서 언급한 기억과 역사보존이라는 내용이 뇌리에 남았다. 복원 후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일부를 함께 전시하거나 일부 웃음을 줄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한다면 광주정신의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박양우 위원장 : -2월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관해서는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나눠드렸으니 참고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의견이다. <시사톡 라이브> 3월17일 방송에서 진행자 발언 중, "이 시각 현재 광주MBC 저희 회사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A조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명명된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정식 명칭으로 불러주길 바란다는 시청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명칭은 고유명사로서 정확하고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특히 방송에서 명확히 해줘야 시청자도 맞는 정보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이 점 유의하여 주길 바란다. 이상 3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수고하셨다.

끝.